

미국發 신용경색 ... 한국 금융시장 문제 없나

◇경기침체가 시발점=한국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출발점은 경기침체다. 이미 내수가 바닥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해외경기 둔화로 수출마저 둔화된다면 그동안 잠복해 있던 위험요소들이 고개를 들면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

예상되는 경로는 글로벌 신용경색→세계경기 둔화→국내경기 하강→부동산가격 급락→중소기업(건설사) 부실→저축은행 부실→은행권 부실→신용경색→위기 확산이다.

앞으로의 위기는 경기침체로 타격받는 중소기업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정민 연구위원은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 지방건설사가 연쇄도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준 저축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물가와 이에 따른 고금리는 기업과 가계의 외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금융권의 위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한국은행은 국제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작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발 신용경색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에서도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 뚜렷하게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세계경기의 위축은 필연적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이는 금융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해외 불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데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과 가계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다.

수출 의존도 높아 글로벌 경기 둔화엔 직격탄 빛 많은 中企·가계 치명타 ... 파산 도미노 우려

◇금융기관 안전화가=금융권에서 취약부문으로 꼽히는 곳은 저축은행이다. 전국 106개 저축은행의 2007 회계연도(2007년 7월~2008년 6월) 순이익은 4천794억 원으로 전년보다 30.3% 급감한 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6월말 현재 9.42%로 1년 전에 비해 0.51%포인트 떨어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저축은행 수익성 및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미분양 주택이나 상가가 물려있는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상반기에 지방 5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5% 아래로 떨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 조치를 받았다. 2개 중소형 저축은행은 인수합병(M&A) 등 자구책

을 추진 중이다. 시중은행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예금은행 기준으로 230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보인정비율(LTV)이 작년 말 52.2%에 이르러 담보가치가 충분한 만큼 집값이 ‘반토막’나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은행들은 설명하고 있다.

◇자금조달 어려워=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회화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국 채권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은 지난 4월 말 현재 0.77%에서 지난 16일에는 2.6%까지 급등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최근 발행할 예정이던 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을 잠정 연기했으며 대부분 시중은행들도 증가된 해외채권 발행을 중단한 상태다.

단기 외화조달 시장에서도 달러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3% 안팎에 그쳤던 하루짜리 초단기 외화차입인 오버나이트 금리는 지난 17일에는 10% 안팎까지 치솟았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홍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은 국세청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 등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일 광주비엔날레 현장에서 관람객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였다. <광주국세청 제공>

“美 금융위기 내년부터 가시화

세계 주요국 소비·투자 위축

코트라 보고서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내년부터 전 세계 주요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는 세계 25개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을 조사해 작성한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주요국 수출시장 긴급점검’ 보고서에서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이르면 내년부터 주요국 시장의 소비와 투자위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내년 전 세계 수입수요는 정체 또는 감소할 것이며, 최근의 물가상승 추세와 맞물려 소비시장 위축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서 북미 지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은 미국 금융위기 영향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돼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경색에 따라 대금회수가 어려워지고 미국 기업의 연쇄도산에 따른 거래선 단절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 축소에 대해 고민하면서 신규투자를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헝가리의 LG전자는 금융위기 여파로 내수 위축을 우려하면서 제품 단순화 등으로 축소지향 경영을 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내부체질 강화방안도 추진 중이다.

코트라는 이같은 전 세계시장의 침체국면에 맞춰 한국의 수출전략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품목이 수요부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함에 따라 신규 수출분야를 발굴하고 수출 인프라를 개선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코트라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美 신용경색 여파 금리 오르지 않을까 불안한 주택대출자

외국인 채권매도에 관심 쏠려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외국인들이 채권매도를 지속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공행진을 재개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이번 주 초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7.63~9.09%로 지난 주 초에 비해 연 0.25%포인트 급등했다.

외환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8.18~8.88%로 0.23%포인트 뛰었으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7.86~9.36%, 8.12~9.32%로 0.12%포인트와 0.11%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7.99~9.39%로 0.05%포인트 올랐다.

은행권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지난 주까지 2주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은행권 금리가 상승하자 오름세로 돌아섰다. 주택대출 금리가 급반등하면 대출자들

들의 이자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5월 첫째 주 6.23~7.73%에 비해 1.6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한 경우 주택대출 금리가 1.63%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326만원 늘어나게 된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의 채권 매도세 영향으로 금리가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출자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은행 정현진 부행장은 “채권시장이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외국인이 채권을 매도하면 은행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중금리의 결정권이 국내 기관을 손에 떠나 있어 향후 금리를 전격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말 현재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신용 잔액이 660조3천억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말의 3.5배에 달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부실을 연결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을정원으로 오세요”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21일 1층 광장을 ‘가을정원’으로 꾸몄다. 빨강고 노랑계 물든 단풍과 가을용 여성 의류를 배치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하도금법 등 상시 위반편 내달부터 업체 명단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반복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가중 처벌키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하도금법 등 4개 법률 위반으로 최근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를 상습법 위반업체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금법에서 운영하는 별첨제도를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로 확대, 같은 법을 어긴 횟수 뿐 아니라 위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법 위반업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치수준별 벌점을 보면 서면경고 0.25점,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

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최근 3년간 하도금법은 누적 벌점 2점 이상, 공정거래법 등 나머지 법률은 5점 이상일 때 상습법 위반업체로 지정된다. 상습법 위반업체로 지정되면 4회 위반시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본 과징금도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된다.

공정위는 가중조치를 받는 상습법 위반업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5회 위반부터는 고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하도금법 위반으로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관련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영영정지를 요청키로 했다. /연합뉴스

60세 이상 노년 가구

월 평균소득 159만원

집을 소유한 60세 이상 노년층 가구의 평균 자산규모는 2억6천만 원이며 월평균 소득액은 159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21일 전국의 만 60~84세 노년층 가운데 집을 보유한 1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년층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122만원이며 소득의 80%를 경조사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 희망소득은 현재 소득보다 47만원 많은 206만원으로 조사해 현재 소득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대비 수단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각종 연금, 금융자산, 자녀 원조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한국 교역조건 악화

유가 상승 등 영향 6년 새 39% 하락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선진국들에 비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금융연구원 송재은 연구위원이 작성한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교역조건 악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상품 교역조건은 2002년 1월에 비해 올해 6월 현재 38.5%나 하락했다. 200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주요 선진국의 순상품 교역조건을 보면 미국은 14.5%, 독일 12.5%, 싱가포르 11.7% 하락했으며 영국은 오히려 6.3% 상승했다. 다만 일본은 -39.2%로 하락 폭이 한

국보다 컸다. 순상품 교역조건은 일정 단위의 수출상품을 판매해 구매할 수 있는 수입상품 물량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교역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한 것은 수입에너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와 국제시장에서 수출 주력상품들의 가격경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유가상승으로 제조업 비중과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의 수입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반도체, 전자제품과 같은 수출품은 가격경쟁과 시장포화로 가격상승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303회)

당첨번호	2등번호 수	당첨자 수
2 14 17 30 38 45	43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672,749,00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7,681,000	29
3	5개 숫자 일치 1,444,516	1,158
4	4개 숫자 일치 59,459	56,266
5	3개 숫자 일치 5,000	938,678

팝콘복권 (제126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3조 953167
2	1억	3조 898202
		1조 947470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69871
5	50만	각조 4125
		각조 33
6	2천	각조 66
		각조 12
		각조 8
7	1천	각조 1
		각조 7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림산업	2008년 기계설비기사 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3	061-720-1705
남영건설	남영건설 신입/경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4	062-360-0781
디케이산업	전략기획팀 인적개발교육담당 경력직	대졸/경력1년	2000~2200	09/24	062-953-0885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금융상품 전문영업인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4	062-382-2815
삼정건설기계	건설 기계 정비(굴삭기) 지점 총괄/광주/전남북지역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9/24	031-378-2140
반디가스엔오일	사무/회계/경리 경력직	고졸/경력1년	1200~1400	09/24	062-523-8301
세이치솔루션	하나로텔레콤 유선상품 영업 홍보사원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9/25	02-456-9799
미플광주중점점	피부관리사 신입 및 경력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5	062-682-8097
프린스턴 어학원	[광주 동구]홍보 및 상담, 회원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6	062-224-0582
성원건설	단순경리업무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6	062-603-2626
동부회계 고객서비스팀	[광주TC센터]Manger 및 텔레마케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6	062-220-8500
에네스건설	재무관리(세무회계, 자금관리 등)	초대졸/경력3년	1800~2000	09/26	062-572-5500
금이산업개발	사무보조,총무직,생산,입출고, 자체관리(화물차운전자)	고졸/경력1년	1400~1600	09/30	062-373-144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펀드 투자자들 손실 ‘눈덩이’

글로벌 증시 급락 주식형펀드 올 43조 증발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내 증시는 물론 중국·인도·브라질 등 주요국 증시들이 급락하면서 국내의 주식형펀드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정부예산(250조원)의 6분의 1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뫼비우스’ 투자=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해외주식형펀드 수익률은 19일 기준으로 미국발(發) 금융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연초 이후 평균 38.55%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던 국내주식형펀드도 26.31% 떨어졌다.

이로써 올해 주식형펀드에서는 해외펀드 25조3천억원, 국내펀드 18조1천억원 등 총 43조4천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대규모 손실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촉발돼 지구촌으로 확산된 신용위기가 최대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해외 약재가 여과없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힌 데는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특정 지역에 쏠리게 만든 ‘뫼비우스’ 투자자의 탓이 무엇보다 크다.

◇또다른 뇌관 ‘펀드런’=대부분 펀드자들이 장기적 투자 차익이 아니라 단기차익을 노려 투자되다 보니 시장불안이 커질 때마다 펀드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엔 투자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펀드런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일각에선 해외펀드의 자금몰이가 최고조에 달한 작년 10월부터 만 1년이 되는 10월 이후 저조한 수익률에 낙담한 투자자들의 판매가 집중될 것이라는 ‘괴담’까지 나오고 있다.

해외주식형펀드에서 7월 이후 현재까지 3개월 간 1조6천억원 가까운 자금이 순유출됐고, 국내주식형펀드도 자금유입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점은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연합뉴스